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유형, 특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이상우* · 김문구* · 신용희*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Abstract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특성 및 유형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교적 잘 구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벤처기업 특히 정보통신 신생 벤처기업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고유한 경쟁환경 및 그들의 창업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중소기업(NTBF : New Technology Based Firm)의 성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최근에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생벤처기업들의 창업유형과 성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은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유형과 유형별 특성 및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되, 그러한 관계는 기업의 창업유형과 창업자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각 유형별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주로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유형과 성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사업전략 및 전략선택에 대한 이론적 체계 및 실제적 적용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의 차원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창업유형들이 구분되어지는가?

둘째, 각 창업유형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가?

셋째, 국내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은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미친다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창업유형 및 창업자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정보통신 신기술을 채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은 그 기업의 자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임의 추출된 150개 업체 중 48개 업체였다.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유형구분을 위하여 창업자특성, 창업과정, 창업지원제도, 창업후 성장과정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를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창업유형을 구분하였고, 구분된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한 후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창업유형과 성과간의 영향도를 측정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정보통신이라는 특정 분야의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유형을 구분하고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을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고유한 경쟁상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선진국 연구결과의 유용성 여부 논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